

세계 경영신화 주역서 그룹해체 비운 파란만장 일생 접고 영면 들어간 거인

45세 대우그룹 회장, 1세대 기업인 그룹 해체 후 베트남서 인재 양성 지난해 말 건강 악화로 국내 귀국 1년간 투병 생활… 연명치료 거부

김우중 전 대우그룹 회장이 9일 오후 11시50분 숙환으로 별세했다. 향년 83세.

사단법인 대우세계경영연구회는 김 전 회장이 수원 아주대병원에서 가족들이 지켜보는 가운데 영면에 들어갔다고 밝혔다. 김 전 회장은 지난해부터 건강이나빠져 1년여 간 투병 생활을 했으며 평소 뜻에 따라 연명치료는 받지 않은 것으로 전해졌다.

‘세계경영 신화’의 몰락 이후 주로 베트남에서 지내던 김 전 회장은 지난해 말 건강 악화로 귀국했으며 대우그룹이 해체된 지 20년 만에 병원에서 생을 마감했다.

김 전 회장은 자신이 자리를 출연해 세운 아주대학교 부속병원에서 지난 1년여 동안 입원을 거듭한 것으로 전해졌다. 1936년 대구 출생인 김 전 회장은

김우중 전 대우그룹 회장 주요 연보

1936년	대구 출생
1960년	연세대 상경대 경제학과 졸
1960~1966년	한성실업 부장·이사
1967년	대우실업 상무이사
1970년	대우실업 사장
1976년	한국기계 사장, 대우중공업 사장
1978년	새한자동차 사장, 대우조선 사장
1979년	대우개발 사장
1985년	연세대 명예 경제학박사
1986년	고려대 명예 경영학박사
1988년	미국 조지워싱턴대 명예 공공사업학박사
1980년	한국중공업 사장
1981~1988년	대우그룹 회장, 한·일경제협의회 부회장
1985년	서울올림픽 조직위원회 위원
1986~1989년	한국섬유산업연합회 회장
1991년	국제민간경제협의회(IPCK) 회장
1994년	미국 사우스캐롤라이나대 명예 인문학박사
1997년	미국 보스턴대 명예 법학박사, 전남대 명예 철학박사
2019년 12월 9일(오후 11시50분) 별세	

연합뉴스

한국을 대표하는 기업인으로 추앙받다 외환위기 직후 부도덕한 경영인으로 내몰리기까지 파란만장한 일생을 살았다.

한국전쟁으로 부친이 납북된 이후 서울로 올라와 당시 명문 학교인 경기중과 경기고를 나왔다. 연세대 경제학과를 졸업하고 1966년

까지 섬유회사인 한성실업에서 일하다 만 30세인 1967년 자본금 500만원, 직원 5명으로 대우실업을 창업했다.

45세 때인 1981년 대우그룹 회장에 오른 이후 세계경영을 기치로 내걸고 그룹을 확장해 1999년 그룹 해체 직전 까지 자산규모 기준으로 현대에 이어 국내 2위로 일군 대표적인 1세대 기업인이다.

1990년대 해외시장 개척에 주력해 ‘신흥국 출신 최대의 다국적기업’으로 대우를 성장시켰다. 해체 직전인 1998년 대우의 수출액은 186억 달러로 당시 한국 총 수출액(1323억 달러)의 14%를 차지하기도 했다. 고인은 ‘세계는 넓고 할 일은 많다’는 유명한 저서를 남기기도 했다.

그러나 대우그룹은 1998년 당시 대우차-제너럴모터스(GM) 합작 추진이 흔들린 데다 회사채 발행제한 조치까지 내려져 급격한 유동성 위기에 빠졌다.

대우그룹은 41개 계열사를 4개 업종, 10개 회사로 줄인다는 내용의 구조조정 방안도 발표했지만, 위기를 넘기지 못하고 1999년 8월 모든 계열사가 위

크아웃 대상이 되면서 해체됐다.

아울러 김 전 회장은 21조원대 분식회계와 9조9800억원대 사기대출 사건으로 2006년 1심에서 징역 10년, 추징금 21조 4484억원을 선고받았다. 항소심에서 징역 8년6월, 추징금 17조9253억원으로 감형됐으며 대법원에서 확정됐다.

김 전 회장은 그룹 해체 이후 과거 자신이 시장을 개척한 베트남을 ‘제2의 고향’으로 삼아 머물며 동남아에서 인재 양성 사업인 ‘글로벌 청년 사업가(GYB M. Global Young Business Manager r)’ 프로그램에 주력해왔다.

장례는 가족장으로 치러진다. 유족은 부인 정희자 전 힐튼호텔 회장, 장남 김선협(주)아도니스 부회장, 차남 김선용(주)벤티지홀딩스 대표, 장녀 김선정(재)광주비엔날레 대표이사, 사위 김상범 이수그룹 회장 등이 있다. 빈소는 아주대병원 장례식장 1호실에 마련됐고 조문은 10일 오전 10시부터 가능하다.

영결식은 12일 오전 8시 아주대병원 별관 대강당에서 예정됐으며 장지는 충남 태안군 소재 선영이다.

/양성운 기자 ysw@metroseoul.co.kr



정희자 전 대통령으로부터 4억불 수출탑을 받는 김우중 전 대우그룹 회장의 모습.



김우중 전 대우그룹 회장이 한국기원 총재 시절 바둑을 두는 모습.



김우중 전 대우그룹 회장이 대우자동차를 방문한 영국 엘리자베스 여왕과 자동차를 보고 있는 모습.



쿠바 피델 카스트로 전 국가평의회 의장과 면담하는 김우중 전 대우그룹 회장의 모습.

연합뉴스

‘샐러리맨의 신화’… 남달랐던 ‘불굴의 경영 DNA’

김우중은 누구인가

국내시장 넘어 세계 향한 경영행보 17조에 이르는 세금 끝내 정산못해

9일 별세한 고(故) 김우중 전 대우 회장은 대한민국 재계 역사에 한 획을 그은 인물이다.

평범한 샐러리맨에서 재계 서열 2위 그룹의 총수까지 올랐다가 대우그룹 부도와 해체 이후 해외 도피를 이어간 김 전 회장의 삶은 마치 한편의 영화와 같다. 김 전 회장의 ‘세계 경영’의 DNA는 젊은 시절부터 남달랐다. 1936년 대구에서 출생해 연세대학교 상경대 경제학과를 졸업한 ‘청년 김우중’이 주목한 것은 작은 한국시장이 아니라 세계 유수의 기업들을 상대하는 글로벌시장이었다.

섬유 수출업체인 한성실업에서 샐러

리맨으로 근무하던 김 전 회장은 트리코트 원단생산업체 대도섬유의 도재화씨와 손잡고 1967년 3월 22일 대우실업을 창업했다. 훗날 40개가 넘는 계열사를 거느린 거대 그룹으로 성장한 ‘대우(大宇)’는 대도섬유의 대(大)와 김우중의 우(字)를 따서 만들어졌다.

창업 당시 자본금 500만원으로 시작한 대우실업은 설립 첫해부터 싱가포르에 트리코트 원단과 제품을 수출해 58만달러 규모의 수출 실적을 거뒀다. 김 전 회장은 대우의 첫 브랜드 ‘영타이거’로 국내 기업 중 처음으로 동남아시장에 섬유제품 직수출을 성사시켰다.

이후 김 전 회장의 행보엔 늘 ‘최초’라는 수식어가 따라다녔다. 대우실업은 1968년 수출 성과를 인정받아 대통령 표창을 받았으며, 1969년에는 한국 기업 최초로 해외(호주 시드니) 지사를 세웠다.

대우그룹은 1960년대 말부터 1970년

대까지 (주)내소날의류 등 섬유회사, 대우증권의 전신인 동양증권 등을 인수하고 대우건설, 대우중공업 등을 설립하며 금융, 전자, 중공업 등 분야로까지 사업 영역을 확대했다. 대우그룹은 1980년대와 1990년대에 비약적인 발전을 이뤘다. 1981년 대우개발과 대우실업을 합병한 (주)대우 출범

1983년 대한전선 가전 분야 인수, 대우자동차로 자동차 사업에까지 발을 넓혔다. 대우그룹은 김 전 회장이 1993년 ‘세계 경영’을 선언하며 1990년대 전성기 누렸다. 개발도상국, 구 공산권 국가 등 해외 시장을 개척하며 급팽창, 정부의 지원, 급속한 성장을 뒷받침. 1998년 41개 계열사, 396개 해외법인을 거느린 재계 서열 2위 대기업으로까지 성장

김우중 대우그룹 출범에서 해체까지

- 1967년 3월 22일 섬유 회사 대우실업에서 출발
- 1960년대 말~1970년대 (주)내소날의류 등 섬유회사, 대우증권의 전신인 동양증권 등 인수.
- 1981년 대우개발과 대우실업을 합병한 (주)대우 출범
- 1983년 대한전선 가전 분야 인수, 대우자동차로 자동차 사업 확장
- 1993년 김우중 전 회장 ‘세계 경영’ 선언 후 1990년대 전성기 누림. 개발도상국, 구 공산권 국가 등 해외 시장을 개척하며 급팽창. 정부의 지원, 급속한 성장을 뒷받침.
- 1998년 41개 계열사, 396개 해외법인을 거느린 재계 서열 2위 대기업으로까지 성장
- 1999년 워크아웃(외환위기)

연합뉴스

2000년 4월 해체



1999년 대우그룹의 부도 직전까지 그는 ‘샐러리맨의 신화’ ‘불굴의 기업가’로 통했다. 그는 기업인의 노벨상으로 불리는 국제기업인상을 아시아 기업인 최초로 받았다. 그러나 외환위기 고비를 넘기지 못하고 1999년 워크아웃 후 2000년 4월 해체됐다.

대우그룹 분식회계 혐의 등으로 복역

이후 사면을 받은 김 전 회장은 베트남으로 건너가 제 2의 인생을 설계하기도 했다. 특히 베트남 현지에서 글로벌 청년 사업가 양성에 주력하며 명예 회복을 꾀했다. 하지만 17조원에 이르는 미납 추징금과 세금을 내지 못하고 1년여 간의 투병 생활 끝에 생을 마감했다.

/양성운 기자